



동부한농 (주)동부한농 구미공장

대한민국 일류서 세계 일류로! 경영혁신 통해 미래농업 선도

국내 최대 생산능력 보유, 농약생산 획기적 전환 이뤄내
무결점 운영, 친환경사업장인 '우수 청색 사업장' 으로 인정

UR, WTO, DDA, FTA 등 갖가지 모습으로 포장되었지만 결국 우리 농업을 위협하기는 오십보백보라는 생각이다. 겨우내 동장군의 위세에 움츠렸던 회색빛 광야가 춘삼월을 맞아 잔뜩 녹색을 머금었지만 황량해 보이기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조건 없이 주기에만 익숙해진 들녘이기에 올해도 그저 버티기에 여념이 없을 농심의 회한을 딛고 풍성한 가을을 담보해 줄 것이라 믿는다. 농약 또한 '들녘의 지킴이' 로써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올해 들어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의 선진 제조 과정 및 현장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농약 및 제조환경,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선입견을 해소코자 마련한 세 번째의 장(場). 구미시 한국 산업단지공단최남단에 위치, 수출 산업단지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주)동부한농 구미공장(공장장 金德煥)을 찾았다.

최대 생산능력 보유, 획기적 생산 이뤄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농업이 존재하는 한 작물보호제는 꼭 필요합니다. 저희 동부한농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제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변화 등으로 작물보호제 산업을 다소 사양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은 만큼 이제 단순히 병해충 방제 및 노동력 절감에만 그치지 보다는 IT와의 접목 등을 통해 농작물에 새로운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국민건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설 때라고 봅니다.” 국내 최대 농업자재 전문업체의 일선 생산현장을 이끌고 있는 금공장장은 주변의 우려시각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국내여건으로는 신규 물질 개발이 지난하고 수출에도 경쟁력이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생명공학과 연계해야 지속 발전이 가능할 것” 이라고 짚는다.



1975년 10월 건설된 (주)동부한농 구미공장은 이듬해 2월에 피복식 및 흡착식 입제공장을 준공하였고 1977년에는 그라목손 원제합성 공장을, 83년에 비선택성 액제공장, 85년에 조립식 입제공장, 92년에 액상수화제 공장을 각각 준공하는 등 진일보해 왔다. 동부그룹에 편입된 95년 이후 97년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2001년에는 ISO 9002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2년에는 무채해 5배수 달성 등의 산업채해 예방활동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또 국내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미공장은 모든 종류의 생산이 가능하고 총 6개 포장라인을 구비하고 있는 코팅·조립·흡착식 입제공장을 비롯, 최신식 혼합 및 포장라인에 입도를 1.5마이크로미터까지 미세분쇄가 가능한 액상수화제 공장과 비선택성 액제공장 등 부지만도 4만4천여평에 이르러 농약생산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국내 최대의 공장이며 60여명의 정예인력이 합심하여 고품질 제품생산을 통한 식량증산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완벽한 제품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적기에 생산, 공급함으로써 회사이익에 기여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목표라는 金공장장은 “무엇보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즐겁고 안전해야 좋은 제품 생산이 가능하

며 생산성 또한 오를 것”이라면서 “과거 다소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은 부분을 최근 들어 완벽히 보완했다”며 직원의 복지측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완벽 운영, 친환경 사업장 인정받아

金공장장은 또 타공장과 다른점에 대해 “입제중심의 공장으로 생산량이나 설비면에서 국내최대를 자랑하고 있으나 양적추구보다는 제품의 완벽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경영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특히, 매주 수요일마다 팀별 경영혁신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경영혁신 분위기를 주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등 늘 변화하며 앞서가는 새로운 동부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제조 종사자를 위한 환경 및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빼놓지 않았다.

대기 1종, 수질 5종 사업장인 구미공장은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기질 관리는 여과(Bag Filter, Hepa Filter), 흡착(carbon) 등의 33개의 방지시설을 운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경북도로부터 친환경 사업장인 우수 청색 사업장(최근 3년간 점검시 지적사항 없음)으로 인정받아 자율 환경업소 지정을 신청했다. 또 대기 및 토양 오염물질 연료인 경유를 시설투자를 통해 도시가스(LNG)로 변경하였고 액상수화제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위해 폐수처리전문업체에 전량 위



탁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유해요인 제거를 위해 산업용 로봇을 액상수화제 공장 포장라인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金공장장은 농약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백문 불여일견”이라면서 “이곳을 찾는

연간 1천여명에 이르는 방문객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이 많이 잘못됐음을 깨닫고는 농약개발 및 제조공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도심지 소비자 및 여론 주도층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협회차원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미니 인터뷰 金德煥 공장장

■ 국내 최대 농업자재 전문업체로서, 그 역사 만큼이나 끊임없는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농약산업은 물론 특히 제조현장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는 여전히 진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요.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사실 해방 후 보릿고개의 배고픈 시대에서부터 녹색혁명을 거쳐 자급자족의 시대까지는 작물보호제의 역할이 막대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격세지감이 듭니다. 이는 식생활 변화와 식량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이제는 건강이 가치기준의 최우선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작물보호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치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으로만 사업을 지속해 온 측면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나름대로 작물보호제의 안전성을 중시하여 국민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개선 하였으나 이런 업계의 노력이 언론 및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음으로써 작물 보호제가 막연히 부정적인 자재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 최근 농업 생산 여건 변화와 함께 다양한 제품 생산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주요 생산 약제 및 시설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을 통해 농산물 시장의 벽이 없어진데다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등으로 농산업 시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부한농은 이 같은 농업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품을 개발, 공급하는 등으로 농업 경영인들을 지원하며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과 웰빙(참살이)에 부합하는 ‘토박이, 엑스텐’ 등의 생물 농약과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수도왕, 투척탄’ 등의 생력화 제형을 개발하여 수입대체 효과 및 재배비용 절감효과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최신 제조설비를 구축,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의 제조 설비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친환경, 생력화 제형의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 주요 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수입쌀이 시중에 판매되는 첫 해로써 우리의 고객인 농민은 물론 작물 보호제 업계도 힘든 한해가 예상됩니다. 동부한농은 외부 고객인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품질개선과 원가절감에 주력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좀더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또 내부 근무자들에게는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사업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내·외부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